



인터넷 시대의 가정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ITU 뉴스는 지난 9월 한국을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국가로 평가했다. 국내 가정에 보급된 PC가 1천만 대를 넘어섰고, 7세 이상 인구의 65.2%가 PC를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우리의 네티즌은 2천6백만명을 헤아린다. 미국 국방부 고등계획국이 1969년 개발한 알파넷이 미국과 학재단 네트워크로 흡수 통합돼 세계 각 곳을 연결하는 인터넷으로 발전한 것이 1980년대. 그러나 상업적 허용은 1990년부터이니 인터넷 본격시대 개막은 이제 겨우 10년 남짓일 뿐이다.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열광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 PC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정작 세계와 연결된 전자통신망인 인터넷이 나오자 시큰둥했다. 인터넷은 정보와 e-비즈니스가 양대 축. 그러나 정보의 질은 신통치 않았고, 비좁은 국토는 전국 어디이건 1일 생활권이어서 인터넷이 얼마나 소용에 닿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봄은 다른 종목에서 일어났다. '수다의 광장'이었다. 패거리를 좋아하는 우리의 문화에 인터넷으로 연결한 커뮤니티는 적성에 딱 들어맞았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모임, 취미 씨클, 학생모임, 교사모임...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 그들은 게시판을 통해 얘기를 주고 받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을 붙인 것은 엉뚱하게도 우리의 고질적인 '학연'이었다. 초등학교 동창생까지 찾아내는 동창사이트 '아이

러브 스쿨'은 '인터넷 거부형'으로 분류되던 50대마저 단숨에 인터넷으로 흡수해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전화통을 붙잡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며 수다를 떨기 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남에게 수다 내용을 들킬 염려도 없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남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있으며 일방적인 나의 견해를 만천하에 공포할 수도 있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비용이 싸게 드니 이처럼 환상적인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대화의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할 말이 넘쳐나는' 이들이 모여 있는 우리 가정은 정작 '옹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은 직장 동료들과, 주부는 이웃과, 자녀들은 친구들과 각각 대화할 뿐이다.

인터넷은 우리 가정의 대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로 마주보고 말하기에 걸끄러운 얘기도 e메일로는 털어놓을 수 있다. 가족끼리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자녀가 만든 홈페이지의 회원이 돼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한 동아리에 들어 같은 회원으로 나란히 활동할 수도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인터넷이 사회성을 높여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준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수다를 되찾게 된다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PPFK**

